

목포시, 조직개편·정책 확대...청년 유입 '사활'

'청년인구과' 신설 컨트롤타워 일자리·주거 등 4대 분야 집중 청년쉼터·창업 플랫폼 등 확충

목포시가 청년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남 부서 신설과 대규모 예산 투입 등 전방위적인 청년 정책 대응에 나선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청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을 대

폭 확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인구과'를 신설했다.
이어 수립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친화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분야별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고 있으며, 주거 분야는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 체류 여건을 조성 중이다.
또한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심리상담과 여가

활동을 지원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여·권리 분야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 있다.
청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투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3천345억원에서 2024년 4천15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일부 사업 종료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2천10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업, 주거안정 등에 집중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불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시설도 속속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원도심에 문을 연 '청년쉼터 다락(多樂)'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다가오는 봄 축제 기간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다락도락2(보물수색작전)'를 운영해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된 '목포청년센터 누리' 역시 청년인구과 직영 체제로 전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시설은 취·창업 지원과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강의실, 실습실, 공유오피스 등을 갖췄다.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부터는 단계별 취업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및 면접 특강, 창업 교육 등 역량 강화 과정이 연중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지속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올해 156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250만원의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인구과 신설로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청년센터 운영과 실용성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군, 슬로걷기 축제 '치유페이 이벤트'

오늘부터 한달간 150명 추첨

완도군은 1일 "지역 대표 봄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막에 맞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완도 치유페이' 인증샷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완도치유페이 현장 안내소와 축제장 등에 비치된 배너 중 2곳 이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필수 해시태그(#완도치유페이 등)와 함께 개인 SNS에 게재하면 된다.
이벤트 배너는 현장 안내소와 청산도 도청

항 메인 부스, 봄의 왈츠 세트장, 도라리·진산리 마을 장터, 해양치유공원 등에 마련됐다.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 QR코드로 연결되는 온라인 폼에 제출하면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연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치유페이 여행 경비 지원은 오는 30일 종료되며, 5월 1일부터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 '완도 반값 여행'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기자

함평군, 양파 노균병 확산 비상 '방제'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1일 "최근 잦은 비와 다습한 날씨로 양파 재배 포장에 노균병과 잎마름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봄철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양파의 뿌리 활력이 떨어져 세력이 연약해진 상태다.
이러한 환경은 토양에 잠복한 노균병 병원균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으로, 방제 시기를 놓치면 밭 전체로 급속히 번질 위험이 크다.
가을에 감염돼 겨울을 난 1차 감염주는 잎이 연한 노란색을 띠고 구부러지며, 방제할 경우 포자가 바람을 타고 2차 감염을 일으켜 심각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사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강우 시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정비하고, 1차 감염 포기는 발견 즉시 뽑아야 한다.
또한 맑은 날 잎 뒷면까지 약액이 묻도록 정



밀 방제하되, 내성 방지를 위해 작용 기작이 다른 2-3가지 등록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살포해야 한다.
문정모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기상 조건상 초기 방제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농가에서는 비가 그친 틈을 타 신속하게 배수를 정비하고 선제적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강진군, 정신건강 통합 예방시스템 가동

자살 고위험군 발굴·집중 관리

강진군이 봄철을 맞아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군민들을 위해 선제적인 정신건강 통합 예방 시스템 가동에 나선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을 대비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봄철은 계절적 요인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로, 센터는 우울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전문가 심리 상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사진>

또한 지역 내 '생명사랑약국'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군민 대상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다지고 있다.
아간이나 휴일 등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1577-0199)를 상시 운영하며 총출발 안전망을 구축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주저하지 말고 복지센터나 상담 전화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50회 영광 군민의 날 문화·예술한마당' 행사에서 경연 참가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제50회 군민의 날 문화·예술한마당 성료

문화예술의전당서 화합의 장 마련

마라톤대회·장기자랑·공연 등 다채

영광군이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군민 화합을 이끌어냈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 '제50회 영광 군민의 날 문화·예술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광풍마라톤대회'로 사전 분위기를 띄운 뒤 본행사 막을 올렸다. 축제 첫째

날 대공연장 기념식을 시작으로, 특설무대에서는 10개 팀의 군민 장기자랑과 11개 팀의 직장인 어울마당이 펼쳐졌으며, 아간에는 대중 가수 현진영 등이 출연한 레트로 무대가 열기를 더했다.
둘째날에는 10개 읍·면이 참여한 농악 대동한마당과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광풍 노래자랑'이 이어지고 노래자랑에서는 11개 읍·면이 경연을 펼친 끝에 군남면이 최종 대상을 차지했으며, 정다경 등 초대가수 공연이 무대를 채웠다.
행사추진위원회는 관람객 편의를 높이기 위

해 야외 무대에 원형 테이블 100개와 의자 1천석을 전면 배치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행사장 곳곳에는 소방 안전 등 17개의 체험 부스와 나눔 부스가 운영됐으며, 미술·한지공예 전시 프로그램이 병행돼 볼거리를 제공했다.
신인창 추진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들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영광군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100만송이 활짝" 신안군, 튼림축제 오는 10일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서

신안군이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를 열고 100만송이의 화려한 튼림 향연과 함께 대학 기관과 연계한 지역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인근 '1004섬 튼림·홍매화정원'에서 제16회 '2026 섬 튼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11.7ha 규모의 정원에 30여종, 총 100만송이의 튼림이 만개해 상춘객을 맞이한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튼림을 배경으로 한 거리 공연과 가족 단위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군은 축제의 성공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목포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정주형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정원을 임시 휴장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람 동선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한 흥매화 축제의 뜨거운 열기가 튼림축제로 고스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기자



영암군, 가축 분만 '야간·휴일 응급대기' 운영

6월4일까지 수의사 2명 출동 대기

영암군은 봄철 가축 분만 집중 시기를 맞아 심야와 휴일에도 신속한 진료 가능한 응급대기 체계를 가동해 농가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6월4일까지 관내 수의사를 대상으로 가축 난산 및 분만 장애 등에 대비한 '야간·휴일 공수의 응급대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이번 사업은 한우와 젖소 등의 분만이 잦은 시기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즉각적인 수의사 출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의료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동물병원과 다나동물병원 등 2곳이 참여하며, 매일 2명의 공수의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기한다. 군은 원활한 체계 유지를 위해 대기 수의사에게 1일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대기 수당으로 농가의 개별 진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농가는 사전에 안내받은 비상 연락망으로 직접 연락해 신속하게 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수의 대기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며 "농가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당직 병원에 연락해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